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상군이 된 두 해녀의 생애사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 및 HRD전공

홍정관

상군이 된 두 해녀의 생애사 연구

지도교수 이 성 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 및 HRD전공

홍 정 관

홍정관의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성 열 인

심사위원 최 운 실 인

심사위원 오 민 석 인

아 주 대 학 교 교 육 대 학 원

2018년 06월

국문초록

해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아도 한국과 일본에서 밖에는 볼 수 없는 전통 어로문화로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업방식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2017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경수(2018)는 그의 책에서 “제주는 기록만 하기에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제주도와 해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지금의 해녀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해녀의 가치는 더욱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들 역시 역사, 문화, 여성, 건강 등의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해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두 해녀의 생애를 통해 그들의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해녀로 성장하는 과정과 함께 어떠한 생애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실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으나 뜻밖의 결과도 있었고, 해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면서 관심도 상당히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결과, 해녀가 입문해서 하군, 중군을 거쳐 상군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학습의 형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래들과의 놀이를 통해 해녀에 입문했다고 하면 이후 선배 해녀들이나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가 전달되는 배움이 일어나며 입문

이후에는 실제 해녀가 되어 얇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터득하면서 물질에 대해 익히는 등의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해녀 이외에도 다양한 생애경험을 통해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성찰하고 해녀로서의 의미와 소중함을 찾기도 하였다.

앞으로 세계적인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해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그것을 토대로 해녀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전승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를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해녀가 되고 해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경험과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을 조명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제어 : 제주해녀, 생애사건, 경험학습, 무형식학습

목 차

I. 서론	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1
2. 연구 문제	04
II. 이론적 배경	05
1. 장인	05
가. 장인의 개념	05
나. 장인의 탄생조건과 변화	06
다. 장인의 관점에서 본 해녀	07
2. 해녀	10
가. 해녀의 정의	10
나. 해녀의 삶과 문화	10
다. 해녀의 성장과정	14
3. 생애주기와 생애사건	17
가. 생애주기	17
나. 생애사건	20
III. 연구 방법	25
1. 생애사 연구	25
가. 생애사 연구의 개념	25
나. 생애사 연구의 과정	28
2. 연구 대상	34

가. 연구 참여자 선정	34
나. 연구 참여자의 특성	34
다. 연구 참여자의 약사(略史)	36
3. 자료 수집 및 분석	38
가. 심층면담	38
나. 중요사건기법	41
다. 자료 분석	43
4.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45
IV. 해녀의 성장과정에 나타난 생애사 연구	46
1. 어릴 적 나의 놀이터	46
2. 장녀이기 때문에	52
3. 계속된 새로운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운명	56
4. 일에서 삶으로	66
V. 논의 및 결론	72
1. 논의	72
2. 결론	74
참고문헌	77
부록	85

표 목 차

<표 II-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현황	11
<표 III-1> 선정된 연구 참여자	35
<표 III-2> 연구 참여자 A의 연령대별 약사(略史)	36
<표 III-3> 연구 참여자 B의 연령대별 약사(略史)	37



그림 목 차

[그림 1] 생애전환기 생애사건의 유형	21
[그림 2] 생애사 연구 과정	29



I. 서론

1. 논문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12월 1일,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앞서 2015년에 이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5월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다. 이는 단순히 해녀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하며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 전승해야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해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아도 한국과 일본 밖에는 볼 수 없는 전통어로문화로 해녀가 바다에 들어가 하는 행위를 ‘물질’이라고 칭하며 이는 특수한 잠수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업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해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해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며 위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시켜 자기실현에 기여하고 사회공동체에의 참여와 기여를 지향하는 인간 삶의 본연의 활동이었다(이선화, 2016). 하지만 최근 제주도와 해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은 ‘지금의 해녀가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을 하고 있으며 문경수(2018)는 그의 책에서 “제주는 기록만 하기에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앞으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해녀에 대한 역사, 문화, 전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녀를 전승, 보전할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박물관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역

시도 보유하고 있는 문헌 자료는 극소수이고, 그것마저도 대부분이 그 당시 모습과 시대 상황을 입에서 입을 통해 재현되거나 지극히 적은 사진 자료만이 남아있기에 제주도를 사랑하고 해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분명 해녀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으로 이를 더욱 보전하여 우리만의 콘텐츠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유산과 국가유산으로 각각 인정받기까지는 해녀공동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언론, 학술연구자들 등 다방면에 걸친 지역사회의 지원이 그 밑바탕에 있었다. 제주해녀 문화의 핵심 전승공동체인 해녀회(어업공동체) 및 어촌계(어촌공동체) 외에도 제주해녀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지역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을 한 지방정부와 언론기관 또한 제주해녀 문화의 전승 주체라 할 수 있다. 인적·물리적 환경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야만 ‘지속가능한 전승’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해녀를 주제로 역사학적, 인류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본 연구들과 해녀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으며 이제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해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고, 그중에서도 교육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해녀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기에 교육학적 관점에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비록 두 해녀 개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이것을 통해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떠한 생애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과정으로, 이때에 전환된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해녀로서 입문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해녀를 학습자로 보고 학습자의 삶을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성찰하며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의 사건들을 분석하여, 해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형태의 학습 경험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승, 발전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두 해녀의 생애를 통해 해녀로서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두 해녀의 생애를 통해 성장과정을 보고 그것이 해녀가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인

가. 장인의 개념

‘장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손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유사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같이 심혈을 기울여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술가’를 통칭하여 일컫기도 한다 (naver, 국어사전). 처음에 나온 정의는 장인을 수공업자인 손 기술자로 말하며 두 번째 정의는 단순히 손 기술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예술 작품과 같이 훌륭한 생산품을 제작하는 사람까지 통칭하며 더 나아가 비유적으로 일컫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인은 우수한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거나 제공하는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한마디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장인으로 불리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원섭, 2015).

또한 많은 문헌을 보면 장인은 대를 이어 전통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김헌신, 1997; 박영희, 2007; 박태순, 2009). 한 가지 일을 직업으로 삼고 훌륭한 기술과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있어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영애, 2010).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인은 삶 속에서 선택한 직업 또는 각자의 분야에서 남들과 다른 능력을 인정받아 타인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장인은 ‘숙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인인 ‘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

장려법」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장인은 한 분야에서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이며, 남들과 다른 투철한 ‘직업정신’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인에 대해 정리해 보면 수공업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으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장원섭, 2015).

나. 장인의 탄생조건과 변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인은 숙련된 기술과 함께 남들과 다른 ‘직업정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숙련’과 ‘직업정신’은 직업 세계와 더불어 변화되어 왔다. 사회와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으며 또한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요구되던 기준이 날로 변화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반복된 숙달, 체력과 같은 육체적 노동이 주였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지적노동이 더욱 요구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인에 대한 시대적 기준도 시대적 상황과 직업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흐름에 맞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연구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통적 장인은 수공업 또는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도 뛰어난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져 왔다(김현선, 1997). 산업화 이후에는 각자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도 포함되었다. 또한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하게 되고 기술 역시 시대의 변화와 함께 하고 있다. 즉, 산업화 이후에는 육체 또는 정신적 직업인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 중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을 장

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장인에 대한 정의는 기존과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화를 생산해 내거나 용역을 제공하던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숙련의 의미와 함께 얼마나 창의적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성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욕구를 가지며 오로지 돈이 직업적 의미의 전부는 아니었다. 결국 현대 사회의 장인은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혁신하고 창조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장원섭, 2015).

이처럼 장인의 탄생조건도 시대의 변화 또는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장원섭(2015)은 시대가 기술, 정보 등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장인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도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전통사회를 거쳐 산업화가 주동력이었던 사회에서는 금전과 노동의 최적화, 안정성과 책임감 등이 장인을 탄생시키기 위한 조건이었으나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자유와 몰입, 사회적 가치의 공유, 창조성 등 산업화 사회에서는 없었던 필요조건들이 함께 생겨났다. 따라서 장인의 탄생조건 역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함을 나타낸다.

다. 장인의 관점에서 본 해녀

인간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 또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직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선다. 또한 직업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직업은 통해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된다. 또한 직업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사회적, 교육적 측면으로 성장해 가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각자가 가진 직업적 환경에서 노력과 열정을 쏟았을 때, 배움이 일어나고 이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반복된 성찰이 배움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업인으로서의 장인이 되기 위한 과정은 무엇보다도 지속적이며 일에 관해서 이상적인 동기가 부여될 때 비로소 올바른 직업적 가치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적 가치는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배움과 함께 오는 성장과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아성찰에 있어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장인은 모든 직업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얻는 직업적 경험은 또 다른 학습 경력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매개체로서 순환적인 관계를 갖는다. 순환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학습을 '경력'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남유진(2016)은 경력을 개인이 직업을 통해 행해온 직무의 역사이자 개인만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수많은 지적 자산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했다(남유진, 2016). 따라서 경력은 장인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자 장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장인은 직업을 갖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많은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을 말하며 직업 세계에서 또한 그들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깊이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장원섭, 2015).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일의 성과물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능력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파급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인의 삶은 지속적인 학습의 의미가 부여되며 직업과 함께 새로운 경험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증가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장인은 배움과 성취를 느끼게 되며 장인의 발전을 이끌어 내며 학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 장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현재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이기에 천재와는 명확하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를 넘어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유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가치는 장인에게 행복의 가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장인의 관점에서 보면 해녀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녀의 입문에서부터 하군을 거쳐 중군, 상군이 되기까지는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새로운 환경을 이겨내는 노하우나 무궁무진한 바다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노력과 시간만 투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배움과 타인과의 교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이 선순환되어 성취감을 얻게 되고 타인과 함께 나누면서 더욱 성장시켜 나간다. 따라서 해녀 역시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라는 행위를 통해 직업 세계의 가치와 성취감을 가지기 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며 더욱 성장하기 위해 배움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장인이라고 불려질 만하다.

2. 해녀

가. 해녀의 정의

사전적 의미에서의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 소라,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잠녀(潛女)라고 부르기도 한다(좌혜경, 2015). 해녀는 제주의 전통적 해양문화이자 여성 어로문화를 대표한다. 오랜 세월이 걸쳐 해녀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져 왔으며, 그들의 생업과 문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공유하였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해녀에 관한 내용은 17세기 제주도를 기록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해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행한 ‘물질’이라는 행위는 가장 원초적인 어로 형태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전통적인 방법이다. 또한 물질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생태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동료에 대한 배려와 협업, 신앙 등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해녀의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의 무형문화재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인정하여 전승·보존하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국가문화유산포털, 2018).

나. 해녀의 삶과 문화

제주 여성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밭과 바다를 오가며 일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물때에 맞춰 그들의 일터나 생활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바닷

일을 하는 남성들의 높은 사망률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생계를 위한 이동, 4:3 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 등이 제주 여성에게 강인한 노동력과 더불어 경제력을 요구하게 되었다(권기숙, 2006). 이러한 이유로 제주 여성은 가정에서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으며 강한 자립심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으며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며 대등한 결정권을 가졌으며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난다(강기은, 2014; 고보선, 유용식, 2002). 이와 같이 제주 특유의 가족 형태에서 보듯이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독립적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해녀는 9,489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14개의 읍면 별로 적은 곳은 96명(제주시 추자면), 많은 곳은 867명(제주시 구좌읍)이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 도내에 101개의 어촌계에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00명의 해녀가 등록되어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2016).

<표 II-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현황(제주특별자치도, 2017) (단위:명)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계	9,489	9,500	4,982	4,952	4,507	4,548

해녀의 일터인 제주 바다의 평균 수온은 여름에는 17.8~26.7℃, 겨울에는 13.1~15.3℃로(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2016),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곳에서 작업을 한다. 최초의 잠수복은 저고리 형태의 면으로 된 하의인 ‘물소중이’와 상의인 ‘물적삼’, 그리고 머리에 쓰던 ‘물수건’으로 이루어졌다. 비록 면으로 제작되었지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작업에 방

해가 되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부터 ‘고무 옷’이라고 불리는 잠수복으로 교체되었는데, 두께는 1~9mm로 여름에는 4mm, 겨울에는 5mm의 고무 옷을 입으며 개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다. 안감은 네오프렌이고, 겉감은 네오플렌위에 고무를 덧입힌 것으로(강권용, 권미선, 2012) 고무 옷의 부력을 통해 잠수 시에는 자신의 몸을 지탱했으며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 허리에 납덩이를 달았다(좌혜경, 2002).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턱’이라는 공간에 모여 준비를 한다. 불턱은 둥글게 돌을 쌓아 올린 형태로, 이곳에서 해녀들은 옷을 갈아입거나 바람으로 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여 추위를 막고 수확한 해산물을 나누는 등 해녀들에게는 쉼터이자 주 활동공간이다. 때로는 불턱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집안일이나 마을의 대소사를 상의하고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작업 중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정보 교환을 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요령이나 물질 작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 주기도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 해녀박물관, 2015; Byun et al., 2015). 이처럼 불턱은 각자의 삶의 애환과 고된 작업 간에 위안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가(정영태, 홍성철, 홍수연, 2008) 1985년을 전후로 온수목욕 및 깨끗한 환경의 탈의장이 갖춰진 현대식 건물의 형태가 지어지면서 불턱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불턱은 현재 70여 개가 모습만을 유지하며 남아있다(해녀박물관, 2015).

해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동으로 무리지어 물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급변하는 상황과 신체 손상 등 작업 간에 있을지 모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며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해녀들은 바다에 나가면 최초 작업이 이루어진 곳에서부터 자신의 위치 파악과 함께 동료들의 위치

를 수시로 살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유지해 왔다. ‘해녀회’를 조직했는데 각 마을의 해녀회장을 중심으로 해녀회가 조직되었으며 마을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며, 해녀의 일터인 어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그 밖의 물질에 관한 일을 수평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 왔으며 그것으로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김혜숙, 2009). 해산물 따른 채취 방법을 공유하고 채취 기간과 금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각 마을마다 바다와 주변을 청소하여 지속적으로 바다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다(김영돈, 1999; 해녀박물관, 2015).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바다에서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무속 의례를 드렸다. 가장 먼저 영등굿은 해녀의 안전과 함께 생업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고 여기는 영등신을 위한 굿으로 영등은 음력 2월 초하루, 제주도에 들어와 해안가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전복, 소라 등의 해산물의 씨를 바다에 뿌리고 2월 15일 경에 우도를 거쳐서 제주도를 빠져나간다고 전승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2월 1일이 되면 영등신을 위한 환영제를 치르고 2월 14일과 15일에는 영등신을 위한 송별제를 지낸다(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 그리고 음력 3월 8일이 되면 잠수굿이 열리는데 이는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의 막내아들을 대상으로 한다. 잠수굿을 드리는 주된 목적은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지만 오래전부터 ‘해녀들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바다에 흉년이 든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며 따라 해녀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장이 되기도 한다(제주도 문화예술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2004).

해녀의 삶을 보면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중 내내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에 물때와 기상, 조업 규정, 금체기간 등으로 인해 농사일을 병행하면서 생활한다. 역사적 문헌을 통해 볼 때도 바닷일과 농사를 병행하는 해녀의 삶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녀의 삶과 문화는 바다라는 특수한 작업 환경을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하고 무속 의례를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은 제주해녀의 화합과 더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다.

다. 해녀의 성장과정

제주해녀의 성장과정은 수련기를 거쳐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로 접어드는 주기를 보인다(좌혜경, 2015). 이 주기는 나이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통상 해녀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서 물질의 숙련을 통해 얇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로 나가게 되며 점차 나이가 들어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면 다시 얇은 바다를 위주로 조업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에서 떠난다.

1) 수련기

제주의 여성은 어린 시절, 지역적 특성상 자연스럽게 바다를 놀이터 삼아 논다. 8세가 될 무렵, 마을 앞 얇은 바다에서부터 물놀이를 통해 헤엄과 잠수를 익히기 시작한다. 집안일을 거들던 어린 딸이나 손녀가 애기 해녀로서 물질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할머니나 어머니는 작은 테왁과 망사리를 만들어 주었고 해녀가 되기 위해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15~16세 무렵이다(좌혜경, 2015). 그때부터 작은 테왁과 망사리를 가지고 얇은 바다에서 또래 소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통해 적응기를 거치

고 자신의 어머니나 마을 해녀들의 물질을 보면서 성장하게 된다(김민호, 문현식, 홍효정, 2015). 해녀 연습생인 소녀들의 주된 놀이는 친구들과 매일 바다에 들어가는 연습과 물속에서 숨 오래참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 조금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해 오기도 한다. 이때부터 초보 해녀들의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 상군 해녀들은 그들이 수확한 해산물을 테왁에 몰래 넣어주거나 조금씩 나눠 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2) 성숙기

해녀의 연습생 기간을 지나고 나면 점차 바다 속에서 숨을 참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업시간도 함께 증가하게 되고 조금씩 익숙해져서 해산물 수확이 증가하게 되면 점차 깊은 바다로 이동을 한다. 자신들의 경험과 거기서 나오는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지역이 특징적인 암초 등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머릿속에 입력하여 언제 어느 바다에 나가면 무슨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숙지해 나가면서 성장하게 된다(좌혜경, 2015).

해녀는 잠수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 상군은 20미터 이상의 바다 속에서 한 번에 2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잠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바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하다(좌혜경, 2008). 중군은 보통 13미터 내외를 잠수하여 작업하며, 하군은 10미터 이내의 깊이에서 작업할 수 해녀를 말한다(전경일, 2010).

성숙기에 접어든 20세 이상의 우수한 해녀들은 육지의 바닷가로 출가해서 뱃물질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주로 여수, 목포의 전라남도 지역과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그리고 부산과 포항, 강원도까지 물질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출가를 했다. 출가 후 육지에서 이루

어지는 물질은 얇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깊은 곳으로 점차 들어가는 기존 형태의 물질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작업의 시간과 수확량은 훨씬 늘어난다. 출가한 해녀들은 따로 거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배 위에서 잠을 청하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힘이 들지만 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뎠다(이선화, 2016). 이처럼 성숙기의 해녀들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면서 상군이 된다.

3) 쇠퇴기

해녀들의 쇠퇴기는 체력적인 부분과 연관이 깊다. 바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일정 부분 이상의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체온보다도 낮은 수온과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수압 그리고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움직임은 일상 생활의 활동량보다도 훨씬 많은 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 각자의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서서히 물질을 조절하게 된다(김지인, 2016).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제주해녀를 보면 80세 이상도 많이 있지만 이들은 쇠퇴기에 접어든 해녀들로 가까운 바다에서 주로 소라나 톳 등을 채취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비록 그들은 작업 시간이 길지 않고 수확량도 적지만 한평생 바다를 의지하고 바다를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온 삶의 터전이기에 조업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와 다른 해녀들과 함께 한다(좌혜경, 2015).

3. 생애주기와 생애사건

가. 생애주기

인간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가 중요한 도구가 된다. 생애 주기는 한 인간의 전반에 걸친 사회·심리·생물학 등의 특징에 따라 시기를 구분한다. 따라서 인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생애사의 관점에서 개인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중요한 시기들의 조각을 짜 맞추어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생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개인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각각의 사건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학자들 간에 생애주기를 분류하는데 있어 아동·청소년기와 노년기를 구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단지 성인기에 대한 정의와 위치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Levinson, 1978).

Levinson(1978)은 인간 삶의 생애를 네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성인이 되기 이전(아동기/청소년기)은 0~22세로 구분했으며 성인이 된 초기(청년기)는 17~45세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성인 중기(중년기)는 40~65세까지로 구분했으며 마지막인 성인 후기(노년기)는 60세 이후로 구분하였다. 성인 이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기의 특징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있으며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와 함께 성장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존적이며 취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성인 초기인 청년기는 한 인간의 인생을 전체로 볼 때, 가장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다. 생물학적 기능과 함께 지능과 지적 능력 등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능

력이 정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미래를 위한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한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때론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가 서로 상반되어 충돌되기도 하면서 더욱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모순 속에 빠지기도 한다.

성인 중기로 분류되는 중년기에는 학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성인 초기에 세웠던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세웠던 꿈과 목표를 재구성하여 인생 설계를 조정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신체적 특징으로 에너지와 욕구가 서서히 감퇴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실감과 굴욕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혼란과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따를 수도 있는 시기이다. 성인 중기의 남성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보니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서히 멀어지며 더 나아가 단절을 통해 위기를 경험한다.

많은 학자들은 중년기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Papalia와 Olds(1995)는 일반적으로 중년의 시기를 40~60세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Levinson 역시 중년기를 40~60세에 이르는 시기로 보고 있지만, 중년기 안에서 세분화하여 성인 전환기(35~45세), 성인 입문기(45~50세), 50대의 전환기(50~55세), 성인 절정기(55~60세)로 정의하고 있다. Jung은 일반적으로 40세 전후의 연령을 성인의 중년기로 구분하였다.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많은 서구 학자들은 65세까지로 구분하였으며, 심리학자인 Neugarten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75세까지를 활동적인 고령자로 지칭해 새로운 중년이라는 의미의 ‘신(新)중년(young old)’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윤영걸, 2008).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인생에서의 모든 것을 완수하고 정리하는 시기이

다. 인간은 신체적 감퇴를 경험함과 동시에 노화와 죽음에 대해 인식한다.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 등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절망감을 경험하며, 삶의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시기이다. Levinson은 이 시기에는 “맹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단순한 성취를 뛰어 넘어 삶의 전반에 걸친 통합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노년기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관련 연구 결과를 봐도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과 비교해 보면 집안일이나 자발적 봉사를 적게는 세 배에서 많게는 네 배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와 가족 구성원의 연장자로서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말한 생애 주기의 구분과 특성은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일반화된 현상을 나열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생애 주기는 개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다르고 그들이 속한 사회나 환경의 상호작용 또한 각각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또한 인간의 생애 주기는 유기적 통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생애 시기들은 또 다른 시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며, 과거와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있다. 따라서 내가 살아온 세계와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세계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현재인 지금이 우세하긴 하지만 다른 시기들 역시 그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Levinson, 1978).

심리학자인 Freud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이 성인이 되는 과정과 삶

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였다. Freud는 성인기를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경험했던 수많은 갈등들이 재연되는 시기로 보고, 그 시절의 정서들이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며 한 사람의 현재 행동과 사고는 그 사람이 이전에는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말해 준다. 그래서 성인의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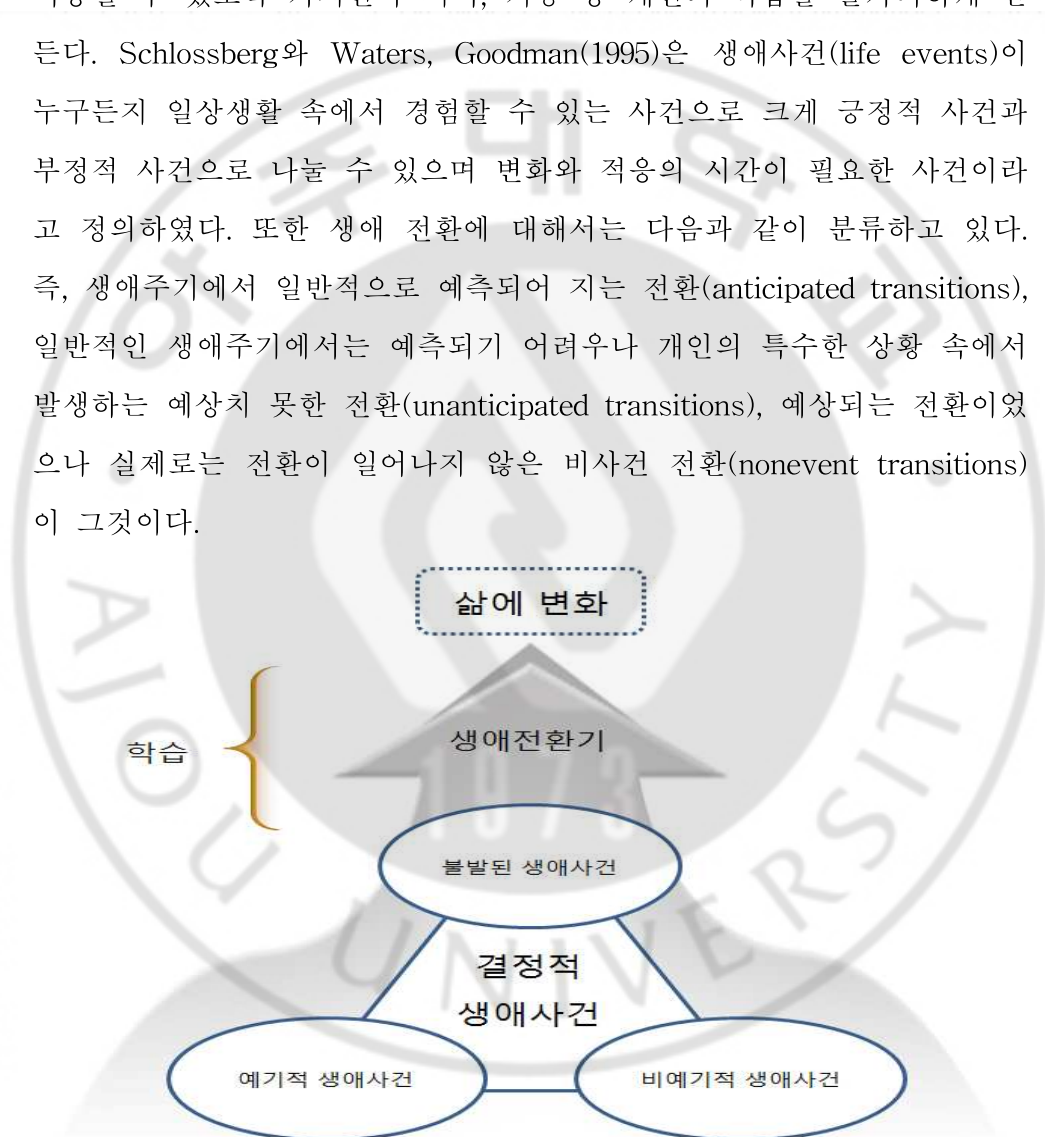
따라서 어린 시절과 중년기 사이에는 관련성이 많으며, 아동기 발달을 탐색하는 것은 성인기 삶을 이해하고 조명해 보는데 큰 도움을 준다.

Jung은 생애 주기별 전환을 ‘개별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화는 인간이 집합적인 존재에서 개별적인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개별화되는 과정에서 개성이 뚜렷해지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잘 추구할 수 있게 되며 현상을 항상 새로운 수준에서 인식하고,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할 수 있다. Jung은 개별화 과정이 성인기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별화 과정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화 과정은 고통스러운 전환기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좌절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쇄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Levinson, 1978).

나. 생애사건

오늘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생애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보다 심각한 생애전환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생애사건들은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치관과 지식, 기능 등 개인의 학습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Schlossberg와 Waters, Goodman(1995)은 생애사건(life events)이 누구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크게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변화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생애 전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즉, 생애주기에서 일반적으로 예측되어 지는 전환(anticipated transitions), 일반적인 생애주기에서는 예측되기 어려우나 개인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전환(unanticipated transitions), 예상되는 전환이었으나 실제로는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비사건 전환(nonevent transitions)이 그것이다.



출처 : Waters & Goodman(1995, p29), 박현옥(2016, p18)

[그림 1] 생애전환기 생애사건의 유형

Super(1990)는 개인의 모든 삶은 각각의 변화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진로 전환을 통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잦은 생애전환은 일반화되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Perosa & Perosa(1983)는 생애전환은 개인의 좌절, 정체, 자기의심, 우울, 의미 상실, 자존감, 회복욕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생애전환이 일어난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을 다루는 의지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역량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김봉환 외, 2013).

개인의 삶의 전환을 촉발하는 생애사건(life event)의 의미에 대하여 Aslanian과 Brickell(1980)은 학습이 촉발(trigger)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생애사건이라고 보았으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생애사건으로는 직업과 가족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즉, 갑작스런 해고와 전직 등의 직업관련 사건 또는 결혼, 이혼, 출산 등의 같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학습을 시작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박현옥, 2016). 성인기의 생애전환은 개인의 능력 차이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측하고 기대한 상태로 전환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Gysbers, Heppner, & Johnson, 2003). 이렇게 전환에서 개인 간 차이는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뿐 아니라 후천적으로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특성도 포함된다.

성인기 생애전환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전환을 촉발시킨 생애사건에 대한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의 이행 여부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전환이 일어나기 전과 전환이 일어난 후의 맥락에 달려 있다.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사건일지라도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과 맥락

에 따라 전환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맥락적 접근을 통해 개인이 처해 있는 미시적 상황을 살펴야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시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상황도 탐색을 하여야 한다. 생애 전환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였는지를 보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독특성과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생애전환은 개인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전환과 비자발적 전환으로 구분되어 진다. Kerka(1991)는 성인 500명을 인터뷰한 결과, 자발적 전환자와 비자발적 전환자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먼저 자발적 전환자들은 직업이나 커리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거나 성장하는 수단으로 보았으며 비자발적 전환자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 외적인 보상(지위, 권력, 돈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자발적 전환자에 비해 성찰적 경험이 낮게 나타났으며 개방적 모습도 적게 나타났다(김봉환 외, 2013).

해외의 성인학습연구에서는 생애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연구가 되어져 왔으나 국내에서는 이제야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시작되기 시작되었다(강유진, 2004; 강유진, 한경혜, 2002; 김정민, 최연실, 2014; 노일경, 이혜연, 2014; 박경호, 2009; 양은아, 2012; 이재경, 2002). 그러다 보니 선행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며 연구의 활성화도 부진한 상황이다. 기존의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 중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생애전환을 다룬 연구로는 ‘웃음강사로 전환한 50대 두 여성의 생애전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황윤주, 이희수, 2015), ‘중년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한 전환학습 연구’(박현옥, 2016), ‘50대 만학도 여성의 생애사 연구: 삶의 영역, 전환점과 적응을 중심으로’(김정민, 최연실, 2014), ‘삶의 전환을 살아간다는 것: 초보 예술가들의 전환적 생애경험을 중심으로’(양은아, 2012)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황윤주, 이희수(2015)는 50대의 두 여성 웃음강사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생애전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첫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마주하는 생애사건(죽음, 질병, 해고 등), 둘째,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발달 단계상에서 나타나는 생애사건(결혼, 출산, 입직, 은퇴 등), 마지막으로 개인이 자발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애전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생애전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연구 대상이 여성들이며, 특히 중년 여성들의 이혼, 죽음, 실직 등의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Ⅲ. 연구 방법

1. 생애사 연구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생애사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한 ‘내러티브의 전환(narrative turn)’에 기초하여(Goodson & Sikes, 2001; 김영천·한광웅, 2012), 개인 삶의 이야기의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게 되면서부터 생애사 연구의 학문적 활용도가 높아졌다(김영천, 2012).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생애사 연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삶은 시대, 국가, 소속된 공동체, 지위, 역할,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 개인의 생애사를 연구한다면 그 시대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가. 생애사 연구의 개념

고전적 의미의 생애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에 대해 문화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생애사는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 과정 속에서 삶의 역사를 외적인 삶의 상태와 더불어 심리적·정신적 측면인 내적인 삶, 모두를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김영천, 2013b: 205). 즉 생애사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재구성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Alheit, 1993; 박성희, 2003; 김영천, 2017 에서 재인용).

Goodson과 Sikes(2001)에 따르면 생애사 연구는 개인이 그들의 삶에 대

한 각기 다른 시각이 존재하며, 개인의 삶과 역사 및 사회적 맥락과 사건에 대한 인식과 경험 사이의 상호 관계가 존재하며, 각 개인이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방법이다. 이처럼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의 내러티브가 사회적·역사적 맥락들로 인해 변화하고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둔다.

생애사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변화하는 관점과 행위지향을 공동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방법론이다(이동성, 2015). 개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여 개개인마다 다른 생애사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Lewis, 2008). 생애사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며,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 연구자의 해석과 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위치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는다(김영천 외, 2006). 따라서 생애사의 목적은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사회문화적 구조와 관련시켜 바라봄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구조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생애사 연구의 네 가지 특징은 생애사 연구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박성희, 2003). 첫째, 개인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나 문화적 습관을 밝혀내는 발견적인 특징을 가진다. 둘째,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목적이다. 셋째, 생애사적 경험의 재인식은 연속적인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경험이 축적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넷째, 연구 분석 시 연구자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눈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맥락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공동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생애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학과 교육학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성은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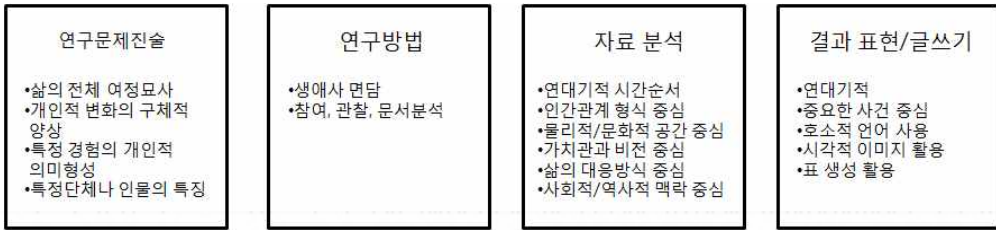
생애사 연구의 선구적인 텍스트는 1920년대 Tomas와 Znaniecki의 『유럽과 미국의 폴란드 농부(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이민 온 폴란드 농부들의 공동체, 가족, 교육적 경험 등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밝힌 연구이다(Goodson & Sikes, 2001; 김영천·한광웅, 2012). 이 연구를 계기로 생애사 연구가 사회적인 소수 집단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뒤 생애사 연구는 1920~1930년대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에 의해 이민자와 도시 빈민들의 삶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Ojermark, 2007). 최초로 개인의 삶을 통해 사회적 구조를 바라보는 사회적 연구로 활용된 것이며, 이로 인해 생애사 연구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Haglund, 2004).

국내에서의 생애사 연구는 외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생애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유철인, 1990; 최영신, 1999; 박성희, 2003; 김영천, 한광웅, 2012; 강숙희, 2013; 김영천,

2013; 아동성, 김영천, 2014; 민성은 외, 2015; 이동성, 2015). 국내의 생애사 연구는 1990년대 사회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다(이희영, 2005). 유철인(1990)은 『생애사와 신세 타령』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애사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 소개했으며, 그 후로 최영신(1999)은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생애사 연구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더불어 생애사 연구를 위한 심층면담, 참여관찰 등의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박성희(2003)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연구 방법론: 생애사 분석법』에서 벡(Beck), 알헤이트(Alheit) 등의 독일 사회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생애사 연구와 기본 이론들을 탐구하였다. 특히 김영천(2012; 2013)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와 그의 책 『질적 연구 방법론Ⅱ』에서 생애사 연구의 역사, 개념, 성격, 절차, 타당도 및 교육학 분야에서의 동향을 다루어 생애사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였다. 최근 민성은(2015)은 생애사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자료 분석 방법을 여섯 가지로 구체화하여 생애사 연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동성(2015)은 『생애사 연구』라는 책을 통해 생애사 연구의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글쓰기 등 생애사 연구의 전반에 대해 정리하여 생애사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나. 생애사 연구의 과정

여기에서는 생애사 연구를 어떤 방법적 순서를 거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의 과정을 단계화하면 1) 연구 문제 진술, 2) 연구 방법, 3) 자료 분석, 4) 연구 결과 표현이다.



출처 : 김영천, 이현철(2017)

[그림 2] 생애사 연구 과정

1) 연구 문제 진술

연구 문제 진술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생애사 연구에 적합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Clandinin과 Conneil(2000)는 생애사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 밟아야 할 단계가 연구 문제가 생애사 연구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사실 질적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질적 연구의 다양한 접근으로 연구하였을 때 연구 문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접근으로 연구하였을 때 타당한 연구 결과가 산출될 것인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마다의 차별화된 특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 문제 설정 과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된 생애사 연구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생애사 연구가 개인의 전 생애적 삶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방법이라는 것이다. Creswell(2007)은 질적 연구의 접근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서, 생애사 연구가 개인의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내러티브 연구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는 생애사 연구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개인의 삶의 경험이나 구체적 이야기를 포착하는데 가장 최적의 연구 방법이라고 하였다. Denzin(1989a) 또한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전체 삶을 묘사하는 연구 방법이며, 한 가지 이상의 에피소드, 개인적 상황, 집단적 경험 등을 통해 개인적 경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Creswell(2007)은 내러티브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가 모두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문화기술지가 개인의 이야기 속의 상황이나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례 연구가 주제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특정한 사례를 이용하는 것임에 비해,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둘째,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적 삶의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다(Dollard, 1935).

Dollard(1935)는 ‘사회적 상황’을 생애사 연구의 한 요소로서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Cole과 Knowles(2001)는 생애사를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 너머의 넓은 사회적 맥락을 발견할 수 있는 ‘창(窓)’이라고 하였다. Runyan(1984)은 생애사 연구가 연구 참여자가 살고 있는 사회적·역사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묘사해야 하며, 사건 및 경험과 관련된 조건의 원인과 의미를 조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이 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애사 연구는 한 개인의 삶의 전체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야기를 통해 시대적·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 방법

생애사(life history)란 개인의 삶의 전반에 관한 기록(personal document)의 형태로 한 개인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을 말한다. 생애사는 제보자의 생활담(life story)을 면담 기록자가 역사적 맥락 또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다(조용환,

1999). 이지혜(2005)는 생애사와 구술사는 물론 자서전, 일기, 신문, 편지 등 생의 대부분을 담고 있는 각종 전기적 자료를 이용한 인문·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을 전기적 접근(biographical approach)이라 하였다. 전기적 접근은 개인의 생애와 전환점 및 생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개인적 서술(personal narrative)을 토대로 한다(최운실, 정민승, 이지혜 외, 2005).

생애사 연구 방법은 성인학습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Houle(1984)은 저명인사들의 전기를 통해 들어난 학습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Ingham과 Nelson(1984)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던 생애사건과 학습 과정을 재조명하게 하였다. Merriam과 Clark(1991)는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일, 사랑, 학습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에게 각자의 삶에서 나타난 생애사건을 중요도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생애사는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형식(form of life) 중에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종교 생애사, 정치 생애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학습적 관점에서 생애사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학습 생애사의 형태가 된다(조용환, 1999). 학습 생애사 연구는 연구 대상자인 개인에 대한 관심을 주된 문제로 의식하고, 연구 대상자의 생애에서 교육과 학습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작용했으며,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부여하는지를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운실 외, 2005).

그러나 우리나라 평생교육학계에서는 생애사를 활용한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강대중, 2008). 생애사를 평생학습연구에 활용할 경우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는 그 자체가 참여자의 해석을 거친 것이다.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제보 과정에서 해석해 나름의 생애사를

구성한다. 참여자가 구성한 생애사를 전달받은 연구자는 이를 연구 자료로 삼아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생애사는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대학에서 경험학습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이 경험한 삶의 사건과 그 경험이 어떻게 지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자세히 기술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사건을 기술한다(Michelson, 2011).

생애사를 포함한 전기적 접근은 연구의 한 방법인 동시에 비판적 성찰을 키우는 수단이 된다(Mezirow & Associates, 1990). 생애사 연구 자체가 제보자에게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강대중, 2009). 이야기는 인간이 경험의 의미를 만드는 수단(Rossiter, 1999)으로, 제보자는 생애경험을 연구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제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재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애사는 제보자의 해석을 연구자가 다시 해석하는 것이며, 결국 생애사는 제보자와 연구자 사이에서 구성된다(최영신, 1999). 생애사 인터뷰 자체가 하나의 학습 경험이나 학습 과정이므로 생애사는 일기나 자서전 등 다른 전기적 자료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강대중, 2009).

생애사 연구는 통찰력 있는 전체론적 접근이다(Howatson-Jones, 2011). 생애사 연구의 사례는 개인화와 사회화 과정이 융합되어 있으므로 이론적 또는 경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생애사 연구는 형식 학습은 물론 무형식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전략을 알려 준다(이경희, 박성희, 2006).

전문성의 발달은 오랜 기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Ericsson et al., 1993), 그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은 전문성 발달

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한다(김정아, 2007). 개개인은 각자의 생애사를 만들어가고, 생애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이 일어난다(이경희, 박성희, 2006). 유사 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해녀의 성장과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한 과정이므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가.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해녀의 생애사를 통해 성장과정을 알아보고 해녀가 되는데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이 성장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자 선정에 더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참여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얼마만큼 협조적인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또한 현존하는 해녀의 대부분이 고령이시다 보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이러한 고민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에 그러한 부분에 착안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나. 연구 참여자의 특성

두 연구 참여자는 모두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분들로 어린 시절부터 해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 A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81세인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현재까지도 해녀 일을 하고 있으며 어릴 적 친구들과 놀이로 시작했던 것이 평생하고 있는 일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물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 시킨 뒤,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해녀이지만 가까운 바다라도 나가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섭섭하고 허전함을 느낄 정도로 바다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고 하였다. 하지만 이 일도 올해까지만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운함을 비치는 모습에 연구자로서 안타깝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B는 A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대신 해녀를 시작했다고 한다. 결혼 후에는 제주도를 벗어나 30여 년간 살다가 7년 전에 다시 귀향했다고 한다. 귀향 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고 해녀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면서 걱정이 많았지만 30여 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여 지금 현재는 상군이면서 지역 어촌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해녀합창단’으로도 활동하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양한 곳에 공연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한다.

<표Ⅲ-1> 선정된 연구 참여자

No.	이름	나이	활동기간	특이사항
1	A	81세	66년	- 15세에 본격적 해녀 시작
2	B	60세	10년	- 중학교 졸업 후, 해녀 시작 - 결혼 후 타 지역에 거주(21세) - 7년 전, 귀향하여 해녀 시작

다. 연구 참여자의 약사(略史)

<Ⅲ-2> 연구 참여자 A의 연령대별 약사

구 분	내 용
1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8년 북제주군(현, 제주시)에서 태어남 - 초등학교를 입학했으나 당시 일본말을 배우는 것이 싫어 학교를 그만둠(8세) -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재입학했으나 다시 그만 둠(10세) - 4·3사건 발생(11세) - 해녀시작(15세) - 제주 이외 지역(부산 기장, 삼천포, 통영 등)으로 출가 (18세 무렵)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21세) - 첫 출산(22세)
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출산 이후 둘째(아들), 셋째(아들) 출산 - 넷째(아들), 다섯째(딸), 여섯째(아들) 출산 (4남 2녀)
4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손자(43세)
5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소재의 해녀 옷에서 고무옷으로 바뀜
60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물질을 하고 있음 (얕은 바다를 위주로 소라, 성게 등을 채취)

<Ⅲ-3> 연구 참여자 B의 연령대별 약사

구 분	내 용
1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년 북제주군(현, 제주시)에서 태어남 - 초등학교 입학(8세)
2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졸업 후 취업 대신 해녀를 선택(17세) - 전남 완도와 경남 통영 쪽으로 출가(19세) - 결혼(22세) - 부산으로 이주(22세)
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출산(23세) - 둘째(딸) 출산(25세) - 자영업 시작(31세) - 보험회사 및 식당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
4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로 개종 - 부산 동래구로 이주(42세) - 집안에 큰 일이 있었음(44세) - 경기도 김포로 이주(45세)
50대~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이주 후 다양한 직업을 경험 - 제주로 귀향(53세) - 귀향 후 물질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음 - 해녀합창단에 가입(56세)

3.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다양한 질문을 통한 면담 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의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중요사건기법을 통해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준 학습 사건을 수집하였다. 중요사건기법은 자료 수집 방법인 동시에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Flanagan, 1954). 이 연구에서는 해녀의 생애에서 인생의 전환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 중요사건기법을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언론기사와 영상자료, 출판물, 연구실적 등을 수집하였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현상 자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준다(Merriam, 2009).

가. 심층면담

생애사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심층면담이 있다. 심층면담 중에서도 생애사 면담은 연구 대상자의 삶 전체를 발달 과정에 따라 이야기 하는 방법을 말한다(김영천, 2013). 이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일생을 통해 삶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경험이나 생각 등을 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 대상자 자신도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되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단지 몇 번의 면담으로 참여자의 삶 전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

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직접 뛰어들어 함께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연구 참여자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들여다본다고 할 수는 없다.

자료 수집은 해녀들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고적인 심층면담을 활용하였다. 회고적인 심층면담은 다른 방법으로는 탐색하기 어려운 전문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억에 의존하며,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관점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과거의 사건과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Sosniak, 2006).

회고적인 심층면담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전문가의 수행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Smith, 2008),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문성을 연구하기에 회고적 심층면담은 필요한 방법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전문성 발달에 대한 연구에 적합(Sosniak, 2006)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 주제인 해녀의 성장과정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자극해야 발견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주관적인 경험과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면담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 된 면담 방식으로 1대 1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된 면담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면담을 실시하지만, 모든 질문은 융통성 있게 활용된다(Merriam, 2009). 질문지는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외에도 해녀 관련 전문 서적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심층면담은 미리 정해진 질문 목록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므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Lichtman, 2006). 연구자의 작은 표현의 차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가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해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므로(Flanagan, 1954), 심층면담에서는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박정영, 2000). 생애사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심층 면담을 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박성희(2004)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시각과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심층면담 중에는 되도록 질문을 피하고 경청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만을 얻기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심층면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사전에 대상자를 만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을 미리 제공하여 면담에서 논의할 주제에 대해 연구 대상자가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협의하고, 면담 전일과 당일에 확인한 후 방문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면담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으며,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심층면담 도중에는 심층면담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였으며, 이야기 도중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면담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담 시간은 참여자들이 여유 있게 면담할 수 있는 일자와 시간을 잡았으며, 주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시간을 활용하였다. 저녁 시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녀탈의장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 수시로 면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집이나 해녀탈의장은 연구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이용해온 공간들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 최적의 면담 장소라고 판단되었다.

1차 면담은 개인의 프로파일과 중요사건 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개인별로 약 2시간 남짓 이루어졌다. 2월 중순경에 이루어진 1차 면담에서는 가끔씩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벼운 질문을 하였다. 2차 면담은 1차 면담이 끝난 약 1달 후에 이루어졌으며 면담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을 주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전화 통화를 통해 추가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면담에서는 기존의 1, 2차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해 같이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에서 구성되는 생애사 연구(최영신, 1999)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단순한 연구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연구자와 공동 작업을 하는 동반자로 인식한다(이지혜, 2005).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은 개인의 프로파일, 중요사건 질문, 경험학습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녹음한 면담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면담 중에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도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후속 면담과 전화면담을 통해 추가로 수집하였다. 심층면담 이외에도 해녀에 대한 언론 기사와 영상자료, 도서, 연구실적 등을 수집하여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명과 직장명 등 개인 정보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나. 중요사건기법

심층면담과 함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중요사건기법을 사용하였다. 중요사건기법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인간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Flanagan(1954)에 의해 개발된 연구 방법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중요사건기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공군의 항공심리부서장인 Flanagan 대령이 직무의 중요 요소를 결정하고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사

용한 접근법을 기술하면서 시작되었다(Russ-Eft, 1999).

산업조직심리학에서 직무분석의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중요사건기법(Russ-Eft, 1999)은 심리학과 사회학, 경영학, 문헌정보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각각의 접근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중요사건기법은 전문성 관련 연구들(김정아, 2007; 오현석 외, 2009; 홍애령 외, 2011; Smith, 2008)은 물론 의사, 간호사, 임상영양사 등 의료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Ackerman, Graham, Schmidt, Stern, & Miller, 2009; Cheek, O'Brien, Ballantyne, & Princombe, 1997; Marquis, 2002; Rosenal, 1995)에도 적용되었다. 중요사건기법은 분석기술을 발전시키고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George, 1989).

중요사건기법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폭넓은 심리학적 원칙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잠재적 유용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간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Flanagan, 1954). 특별히 중요하고 체계적인 범주에 부합하는 관찰된 사건들을 수집하는 절차들의 개요를 제시한다.

Flanagan은 중요사건기법의 중요한 개념인 사건과 중요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사건은 사람이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추론과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찰 가능한 인간 활동이다. 중요함은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가 연구자에게 분명하고, 행동들이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한다.

중요사건에는 특정한 업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성순, 2009). 중요사건기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사건이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불만족, 효과적인 것과 비효과적인 것 등의 특정한 결과를 유발시키는 사건을 수집, 분석하는 과정이다(박정

영, 2000). 가장 최근의 기억보다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수집된 사건은 분류 작업과 추정 작업이 필요하다(고성순, 2009). 인간 행동에 대해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작업은 귀납적으로 이루어지며, 주관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 해녀의 성장과정에서의 중요사건을 도출하여 학습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중요사건기법은 통상적으로 사전 설문형태로 진행된다. 사전에 연구대상이 아닌 전문가와 자료 수집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참여자들의 일정과 연령대를 고려할 때 설문지에 응답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1차 심층면담에서 설문지가 아닌 질문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해녀가 입문해서 상군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애주기별 사건과 경험이 어떻게 습득되어졌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두 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그것을 시계열적, 유사한 경험으로 정리한 다음, 그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사건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본이 적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서적과 문헌 자료를 토대로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면담한 내용들을 전사하여 유사한 경험이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묶었으며 이 부분에서 공통되어 나타나는 단어나 맥락을 정리하면서 개념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면담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
여주었으며 면담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 방법에서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만큼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현장이나 다른 연구들에게 의미가 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 연구 결과가 신뢰, 타당해야 한다(Merriam, 1988).

본 연구는 관련문서, 자료,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과 만남을 통해 어떠한 목적으로 면담이 진행되며 면담을 통해 나온 자료들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다. 생애사를 통한 연구인만큼 연구 참여자의 솔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 면담 장소를 집으로 설정하거나 실제 해녀 탈의장 등 새로운 장소보다는 친근한 장소를 선정하여 편안한 가운데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자료들은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니셜로 표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질적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 사이에 친밀관계(Rapport)를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이해 시켰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일정과 간에 맞추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둘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연구 참여자가 불편해 하거나 곤란해 하는 질문이 있을 경우 수집하지 않았다.

IV. 해녀의 성장과정에 나타난 생애사 연구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생애 전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해녀로서의 삶의 시작과 그 삶 속에 나타난 여러 이야기를 통해 해녀의 성장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연구 참여자는 살아온 환경, 나이, 학력 등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해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수많은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통해 그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발견해 내하고자 하였다.

1. 어릴 적 나의 놀이터

연구자는 이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녀를 시작하게 됐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 예상했던 답변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였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아도 일제강점기와 4·3사건 등 여러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지역적 특성상 굶주림이 가장 큰 고통이고 농사와 해녀 이외에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연구 참여자의 면담을 통해 나온 대답은 연구자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긴 했지만 그 시절에도 놀이는 필요했고 집 앞만 나가면 접할 수 곳이 바다였기에 자연스럽게 바다와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연구 참여자A>

초등학교 1학년이 될 무렵, 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우리말인 한글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일본말을 배우는 시절이었다. 나는 웬지 일본말을 배우는 것이 싫었다. ‘내가

왜 일본말을 배워야하지?’라는 생각에 하루, 이틀 학교를 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딱히 우리가 할 놀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주로 바다를 놀이터 삼아 놀았다.

<연구 참여자B>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많지도 않았다. 초등학교를 갔다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주로 바닷가나 집 앞 양식장에서 친구들과 놀았다. 대부분이 물에서 하는 놀이였다. 특별한 장난감이 없어도 놀 수 있는 공간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장소였던 것 같다.

두 연구 참여자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릴 적부터 물이라는 환경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집 앞에 나가면 바다와 양식장이 있고 지금처럼 장난감이 흔한 시절이 아니었기에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는 물을 가지고 놀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물을 가까이하고 바다에서 놀 때면 물질하는 해녀들을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쩌면 해녀를 한다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해녀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보면 통상 15~16세가 될 무렵 처음 물질을 하게 되고 그 전에는 밭일은 한다거나 물질 나간 어머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한다(좌혜경, 2015). 그렇다고 제주에서 태어난 여자라고 해서 모두 해녀가 되지는 않았다. 물을 무서워하거나 부모의 입

장에서 험한 바다로 내모는 것이 싫어서 해녀를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 해녀를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개인이 직업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다. 내재적 동기는 일에 대한 흥미나 도전의식을 통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기인 반면 외재적 동기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환경 등 외부에서 오는 동기를 말한다(Cameron & Pierce, 1994; Cameron & Pierce, 1996; Deci & Ryan, 2000).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특성에 따라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기준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두 연구 참여자의 사례에서 보면 내재적 동기보다는 바다와 물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놀거리가 딱히 없었던 어린 시절, 친구들과 갔던 바다에서 연구 참여자 자신의 어머니와 더불어 마을의 분들이 물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해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두 연구자의 사례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으며 바다 근처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해녀들을 보게 되었고 해녀들의 잔일을 도와주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

어린 시절 스티로폼으로 된 동그란 모양의 공같이 생긴 물건을 가지고 가끔 놀았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고무튜브가 없었던 시설로 친구들과 놀이 때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곤 했다. 조금 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그것이 테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테왁은 내가 해녀로서 물질을 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었다. (중략) 테왁은 나에게 내

목숨을 의지하는 구명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디 있는
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

제주해녀가 언제부터 물질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머니나 선배
해녀들로 하여금 테왁을 언제 받았는지를 알면 대략적으로 경력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물가에서 해엄치고 친구들과 놀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만의 테왁을 받는 순간이 정식 해녀로 입문하는 시기이다. 그때
부터 테왁은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해녀와 함께 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
테왁을 받고 해녀로서 입문을 하는 시기를 내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는 사
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해녀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슬
퍼하기도 한다(서명숙, 2015). 두 연구 참여자는 일반적인 문헌 자료와 비
교해 볼 때, 다소 늦게 입문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물질의 습득 능
력과는 별개로 판단된다.

막 어릴 때, 바다 가까이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물질하는 모습
들을 구경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누가 해 보라고 하면 기다렸
다는 듯이 천천히 들어가는 시늉을 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면서 해엄도 쳐보고 잠수도 하며 놀았다.
누가 시키지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
는 놀이가 이것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다. 친구들이랑 누가
오래 숨을 참는지 시합도 하고 놀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중
략)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물질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은 이상은 해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다. 처음부터 해녀들은 자신만의 노하우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지. 처음에는 직접 들어가서 해산물을 잡아보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중략) 그러다 보니 스스로 기술을 터득하게 됐던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수도도 떨어다 보면 해가 저물기 일쑤였다.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 습득했던 것을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힌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서로가 교수자와 학습자가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로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났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놀이는 해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형식학습이 아닌 무형식학습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무형식학습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형태로 실천 지향적이면서도 일의 특성이나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일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한계가 정해지며 주도적이며 비판적 성찰과 창의성을 통해 나타나는 학습이다(Watkins & Marsick, 1992). 무형식학습의 정의를 토대로 볼 때, 형식학습은 전통적인 학교 형태 구조화된 모습이라고 보면 무형식학습은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식학습은 별도의 구체적인 교육 목표의 설정과 그것을 성취하기 활동으로 일상적인 삶의 경험에서 나타난 학습을 의미한다(권대봉, 2002; Thomas, 2004; Marsick & Volpe, 1999; Cseh et al, 1999; Merriam & Caffarella, 1991).

따라서 해녀는 근무현장인 바다에서 물질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하면서 학습이 수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은 해녀라는 직업적 특성상 바다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일상의 전반에 걸쳐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공간이 학습의 장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장녀이기 때문에

두 연구 참여자가 해녀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 말 속에서 ‘딸이’ 혹은 ‘큰딸’이라는 단어가 줄 곳 나오곤 했다. A는 3남 5녀 중에 딸이이고 B는 4남 2녀 중에 딸이로 태어났다. A는 꼭 딸이라기보다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학교에서 일본어로 수업하는 것이 싫었기에 매일 바다를 찾아갔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해녀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B는 조금 달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 진학사에서 고민했다고 한다. 형편이 그리 나쁘진 않았지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선택한 길이 해녀였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취업을 해녀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집 앞만 나가면 바로 바다가 있고 사계절에 맞게 다양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으로 거기에 수입까지 괜찮았기에 경제적으로도 큰 고민 없이 해녀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던 시절, 학업을 이어가기 보다는 바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찾아보던 취업 자리가 해녀였다. 어쩌면 당연했다. 지역적 특성상 다양한 직업이 없었거니와 어려서부터 물과 친하게 지냈고 물은 주변에 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네 친한 친구들과 같이 해녀를 시작하다보니 어려움보다는 재미가 컸다. 또한 다양한 해산물들을 채취할 수 있었기에 그 시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두 연구 참여자가 해녀를 시작하게 된 5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이기였기에 학업보다는 경제 활동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다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만이었다는 무게감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 두 연구 참여자의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그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처음 해녀를 하기 위해 준비할 때에는 엄마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많이 가르쳐주셨다. 예를 들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행동이나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도 괜찮은 곳, 해산물물을 채취하는 기본적인 방법 등을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가르쳐주려고 노력하셨다. 그리고 엄마뿐만 아니라 마을에 함께 하는 해녀들이 엄마에게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고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서서히 해녀로서의 자질을 갖춰갔다.

하루는 마을 분들이 우뚝가사리를 뒤집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힘든 걸 왜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뚝가사리를 하면 수입이 꽤 된다는 것을 알고 친구를 설득해 같이 하게 되었다. 우뚝가사리 작업은 해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는 작업이기에 한편으로 수월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이때 마을의 기존 해녀들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 해녀를 위해 교수자로서 물질을 하는 방법과 해산물 채취 요령 그리고 연장을 사용하는 방

법 등 해녀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해 교수자가 되어 가르쳐준다. 면담에서도 나타나듯이 보통은 가족이나 함께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녀 개인의 경제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나이에 맞춰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갔지만 내가 어릴 땐 그렇지 못했지. 우리 시절에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많지 않았지. 엄마나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물질을 하거나 아님 동생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지. 지금은 시대도 좋아지고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물질을 시키기보다는 공부하라고 하지. 내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해녀가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후회되는 건 없어. 해녀를 하면서 동생들 돌봤고 결혼해서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다 보냈고 손자에 증손자까지 보고 있으니까...(중략) 나 말고도 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학교에 가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해녀가 되어 물질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주의 해녀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그 시절에는 남자들은 대부분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조업을 했기에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업보다는 해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만 해도 제주에서 나고 자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해녀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1960년대 이후 마을 단위의 어촌계가 형성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해녀의 자격은 승계제도를 두어 큰 딸에게는 승계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

도 많지 않아서 최근 들어서는 모든 딸이나 심지어 며느리에게까지도 승계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실제 사례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김민호, 문현식, 홍효정, 2016).



3. 새로운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운명

두 연구 참여자 모두 해녀의 삶이 때론 순탄하기도 했지만 힘든 과정도 많았다고 얘기를 한다. 매번 다른 물살과 파고 외에도 여러 조건과 환경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인터뷰 내내 말했다. 이걸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같은 바다라도 들어갈 때마다 다르다. 바다도 육지와 같아서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겨울도 있다. 아마 해녀가 아닌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바다 속 봄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 솟는 시기이고 여름엔 태어난 생명들이 성장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때에 따라 금어기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물에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면 들어가서 물질을 했지.(중략)

연구자는 바다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양한 생명이 사는 곳이기에 사계절을 통해 성장하고 번식하는 것이 말이다. 하지만 두 연구 참여자 모두 같은 바다, 같은 지점이라고 해서 매번 같은 조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다양한 자연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를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해녀를 하군에서부터 상군까지 나누는 것이다. 또한 상군 중에서도 주로 채취하는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붙여지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B>

물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물질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시간 물질을 하더라도 수확량이 많고 해산물을 얼마나 손쉽게 채취하며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잡을 위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바다 속 돌의 위치나 모양을 모고 해산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해녀가 잘하는 것이다. 그냥 해산물이 보인다고 무턱대고 잡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연장을 넣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지 등 (중략) 경험이 적은 사람은 보이면 보이는 대로 손이 먼저 가고 연장이 먼저 가서 문어나 물고기들이 도망가는 것을 자주 보는데 그렇게 무턱대고 잡으면 안 된다.

<연구 참여자A>

해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군, 중군, 상군으로 나누는 것이다. 하군은 이제 막 시작한 해녀로 가까운 바다에서 주로 작업을 하며 중군, 상군이 되면서 점차 멀고 깊은 바다로 물질을 하기 위해 간다. 그리고 상군도 주로 잡는 해산물에 따라 나누었다. 또한 멀리 안 나가도 많은 경험을 통해 멀리 나가는 상군보다도 훨씬 수입이 좋은 상군도 있었다.

면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군에서부터 상군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더 깊은 곳으로 나가서 물질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이라도 어떠한 곳에 해산물이 많으며 짧은 시간에도 얼마만큼 채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해녀의 성장은 경험을 통한 학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경험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행동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 기술, 지식, 실천 등으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사실’이라고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18). 경험은 우리의 생애 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생겨나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곳에서 존재하게 된다. 또한 경험은 삶의 외적 조건인 환경과 인식의 주체로서 개인과 만나게 되는 접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김한별, 2010).

단순히 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가져오지만, 의식과 연관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며 단순한 활동은 어떠한 목적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험은 피드백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경험학습이라고 한다(김지자, 정지웅, 2001). 학습의 과정은 학습의 주체인 개인과 학습을 하는 대상이자 조건인 환경이 합쳐져 이루어진다. 이것은 학습과정에 있어서 경험은 필연적으로 개입하며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 형식 등을 학습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해녀 또한 마찬가지이다. 두 연구 참여자의 면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바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변화하고 성장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학습자로 시작을 해서 교수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경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이 결합되어지는 조건과 구조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개입하는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과거 경험의 특성이 무엇인지는 고려해야 한다(김한별, 2010).

김한별(2010)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습이 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주변의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험을 구성하는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그리고 기능적 능력이 일정 수준이어야 하며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개인은 학습자로 학습자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의 모습과 현실의 자기 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성찰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의미 있는 경험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열했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해 나아가며 그것을 통해 성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학습의 가치는 경험의 질적 수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경험에 대해 개인이 한 성찰의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은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습자는 마주하고 있는 구체적 상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과 관련되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문제적 상황은 평소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일 때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습자가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셋째, 이러한 문제적 상황이 학습자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의미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이 마주한 것에 대해 문제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신이 처한 입장과 상황에 대입해 보았을 때 별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그 문제를 굳이 해결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험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현재의 조건을 함께 고려했을 때, 문제적 상황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거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 중에 첫째는 학습자인 개인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조건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Dewey(1916)는 학습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행동하는 것과 행동의 결과로 대상으로부터 받는 즐거움과 고통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시도하는 것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실제로 겪으므로 배우는 것으로, 대상들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Knowles(1980)는 안드라고지의 다섯 가지 영역 중의 하나로 경험을 강조했으며, Freire(1994)는 ‘문제제기식교육(problem posing education)’에서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및 실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의 형성에 주목했다.

Kolb(1984)는 경험학습의 네 단계 순환모형을 제시하면서 경험을 통해 얻은 성찰이 학습으로 되는 과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SchÖhn(1987)은 행위에 대한 성찰과 행위 중의 성찰이라는 두 가지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을 개념화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Mezirow(1991)는 관점전환이론을 가지고 개인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경험학습은 개별적으로 수행됨이 보편적이나 학습주제의 초기 단계나 동일한 행동의 결과가 요구될 때는 그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경험학습이다.

<연구 참여자A>

그러다가 18살 때쯤, 친구들과 4~5명과 육지로 물질을 하러 가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받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보장

되었고 처음에는 친구들과 제주도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라 신이 났다. 구정을 지내고 나서 몇일 지나지 않아 육지로 갈 해녀들이 모이면 출발해서 육지로 가면 추석 전에 내려오기로 하고 가는 일정이었다. 대개 삼천포, 통영, 울산, 기장 등에 가서 물질을 하는 거였다. 새로운 곳에서 하는 물질이라 새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 참여자B>

하루는 육지로 물질하러 갈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주도를 떠나 본적이 없었기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경상남도 거제나 통영, 전라남도 여수나 목포 등지에서 일을 하는 거였다. 평상시 하던 물질이었지만 타지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큰 것은 다른 지역에서 지내다보니 외롭고 쓸쓸하기도 했고 제주의 바다와는 달리 바다 속이 불투명하다보니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커서 4개월 만에 제주도로 오게 되었다.

제주해녀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출가해서 물질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출가 지역은 주로 연구 참여자들이 갔던 남해안과 전라남도 일대로 보통 6~7개월 정도를 나가는데 제주도와는 확연히 다른 작업환경과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인내하고 견뎠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스스로 성장하게 되고 상군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A>

바다에 들어가 잠수를 하면 자연스럽게 숨 참아져. 숨 딱 참았다가 숨 다 되어 갈 때쯤 되면 물위로 올라오고 참았던 숨을 몰아쉬기 위해 “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숨비소리라고 하는 것이지. (중략) 그렇다고 다 똑같이 숨을 내쉬는 것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하면서 짧게 외치기도 해. 이렇게 하고 나면 몸이 한결 편안하고 가슴이 답답했던 것도 풀어지지. 그렇게 잠깐 편안해짐을 느끼면 다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를 반복하면서 물질을 하는 거야.

<연구 참여자B>

숨은 저절로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숨이 길어서 막 나올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은 곳에서 욕심 부리면 안돼. 물숨을 먹어. 아무리 내 눈 앞에 성게, 전복이 보여도 과감하게 욕심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해. 그 숨에 못 잡으면 다음 숨에 들어가서 채취하면 되니까. 아는 분은 예전에 물질하면서 물숨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아찔했어. 돌 사이에 낀 문어를 잡다가 정신을 잃을 뻔했었는데 그 후로는 10여년을 했던 물질이 겁이 나고 하더라도 아주 가끔 깊지 않은 곳에서만 하게 되더라구.

물속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나만이 느끼는 느낌이 있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올라와야 해.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물숨 먹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

해녀들은 물속에서 작업을 마치고 올라올 때, 참았던 숨을 한 번에 몰아쉬는 행동을 하는데, 휘파람 부는 소리와 유사한 ‘숨비소리’를 낸다. 이는 해녀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 터득한 방법으로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의 숨비소리를 내며 숨비소리를 하고 나면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또한 숨비소리를 통해 같이 물질을 하고 있는 동료의 위치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자신이 무탈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앞서 정리했듯이 해녀의 숨소리 역시도 개인의 특성과 경험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시간에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방법을 실행해보고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지게 된다. 개인마다 심폐량이 다르고 움직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숨비소리가 다른 것도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젊었을 때, 먼 바다에 가면 돌고래가 때로 다니는 걸 많이 봤어. 처음엔 겁도 많이 났고 날 헤칠까봐 무서웠는데, 우리 마을에 상군들에게 물어보니 돌고래를 만나면 “배알로 배알로”라고 말하면 돌고래들이 비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돌고래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헤치는 동물이 아니란 것을 알고 나니 무서움이 덜했어.

실제로 어느 날은 만나서 상군들이 알려준 것이 기억이 나 돌고래를 쳐다보면서 “배알로 배알로”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가더라고. 그 뒤로는 돌고래들이 무섭기보다는 가끔은 반가워.

연구 참여자들은 물질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돌고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었다. 처음에는 돌고래를 마주하면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지만 선배 해녀들의 조언과 경험이 쌓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는 돌고래를 보면 ‘그 날 작업을 망친다.’는 속설이 있어 피하기도 하고 꺼려하는 동물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친근하고 가끔은 보고 싶을 정도라고 한다.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고향인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낯선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슈퍼마켓도 운영해보고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컨설턴트로 그리고 식당 주방, 치킨집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집에 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있는 후로 한동안은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의욕도 떨어졌던 것 같다. 그럴 즈음에 부산을 떠나게 되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일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가는 계기가 생겼다. 딱히 구체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타향에서 사는 것에서 오는 쓸쓸함과 그때 당시에 느끼고 있던 허전함이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제주도로 가는 일은 결정한 순간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다시 돌아온 제주도였지만 쓸쓸함과 허전함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기억된다. 시간이 지나고 제주도 생활에 차츰 적응을 하게 되고 밭일과 물질을 시작하게 되면서 비록 몸은 힘이 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지금은 물질과 밭일뿐만 아니

라 해녀합창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나 자신을 지금 생각해보니 제주도에 돌아온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B는 결혼 후 오랫동안 해녀와는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면서 30여 년간의 세월을 살았다. 물론 결혼 전에 경험은 있었지만 그 경험이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서는 놀랍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간의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익힌 기술이나 학습은 지금은 떨어져 있어서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경험한 사람이 그 기술이나 학습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기억을 해내거나 몸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험의 강도와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학습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인간이 경험을 통해 한번 익힌 것은 축적되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일에서 삶으로

제주해녀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제주 어머니의 모성성과 더불어 강인함의 이미지가 강한 생명력을 넘어 생태 환경적 측면이 강조된 여성생태주의(Eco-Feminism)면에서 충분히 세계적인 존재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농업과 어업을 번갈아하는 전통 생업과 문화의 주체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끌어 오면서 남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 있어서 ‘양성 평등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좌혜경, 2015).

또한 해녀 항일운동을 통해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제주 여성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보여 주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의 식민지 수탈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자 구좌와 성산을 중심으로 일제의 수탈에 맞서 저항하며 생존권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1931~1932년까지 연인원 1만 7000여명이 참여한 대소 집회 및 시위 횃수 연 230여 차례의 기록을 남긴 해녀 항일운동은 단지 생존권수호를 위한 투쟁만이 아닌 일제 식민지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일제 탄압을 규탄한 거국적인 운동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좌혜경, 2015)

과거의 역사적인 공헌도와 더불어 사선을 넘나들 정도로 고단하고 위험이 수반된 ‘물질’이라는 작업적 특성, 고령화로 작업 인원수가 줄어든다는 점과 관련하여 다른 직종에 비해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해녀들의 생업과 문화는 살아있는 유산이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해녀들은 집안 내적인 일보다는 밭농사, 바다 물질 등 외적 노동으로 남자 못지않은 역할을 담당해 왔고, 그녀 자신들은 늘 경제적인 주체로서의 인식과 자부심이 있었다. 수동적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생활로 삶의 주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 여성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우리 마을의 대부분의 해녀는 물질과 농사를 겸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보통 새벽에 일어나 밭에 가서 검질도 매고 정리도 하다보면 아침 9시쯤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해. 처녀 때는 밭일을 하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체력을 많이 쓴 상태라 힘이 많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물질 갔다 와서 밭에 가면 또 땀나게 일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힘든 물질을 하면서 밭일까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차츰 적응이 되다보니 그렇게 되더라고.

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 가끔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하기 싫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바다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일에만 집중 할 수 있으니 편안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밭일에 자식 걱정엔 집안일까지... 걱정이 태산이라 머리가 아플 정도에 들어가면 아무런 생각 없이 물질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아. 그러다 뜻밖의 수확이 있으면 기분까지 좋아지지. 바다에 가면 내가 하는 만큼 내 것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일정이 되니 더욱 편안한 것 같아.

제주해녀의 삶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나타낸다. 선행 연구 자료나 해녀 관련 서적들을 보아도 해녀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해내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자들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조업을 나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일상 속에서도 바다에 들어갈 때만큼은 편안했다는 얘기를 한다. 실제 제주도에 가서 보면 나이가 많아 허리가 다 흰 할머니들을 보게 된다. 이런 분들이 ‘과연 물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는 물질을 돈을 버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물에 들어가는 일상을 반복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물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이는 바다 속에서는 몸을 움직이는데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반면, 육지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곳이 많다고 한다.

이처럼 물질을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제약에도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물질을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도 편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십 년간을 해녀로서 생활을 하다 어느 시기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해녀가 은퇴하는 경우는 체력적으로 무리가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바다에 가서 숨빌 때에도 사람 있는 쪽에서 방해가 될까 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쪽으로 이동해서 해. 그리고 한참을 작업하다가 숨이 차면 테왁을 부여잡고 쉬기도 하고... 쉬면서 이런 저런 생각도 하고 얘기도 하고...(중략)

가끔은 물질하다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하군 아니면 중군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래. 지금 못 잡으면 다음에 잡고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는데 꼭

잡으려고 하다가 몸에 고장이 오는 경우들이 생겨. 그리고 바다도 우리가 생각해주는 만큼 우리에게 주는 곳이기에 여유를 가지고 물질도 해야 돼.

큰 바위 사이에 해산물이 많은데 연장을 잘 못쓰거나 손으로 잡으려다보면 돌에 끼여서 위험한 경우도 많아. 그럴 땐 항상 같이 작업을 하니까 도움을 청하기도 해.

밭일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해녀의 물질은 돌밭 상황이 많아 위험하기에 마을 단위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기간을 정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 이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 주는 행위였으며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물질을 지속했다. 공동체 안에서는 개별 노동과 마을 공동의 작업을 병행해 왔으며, 반농반어의 부지런하고 억척스런 삶을 살아오면서 제주해녀로서 자부심과 만족감도 갖게 되었다.

또한 어촌계의 규약에 따라 어업권을 확보하고, 어촌계의 일원으로 규율을 준수하며 공동체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개인 수준에서 보면 제주해녀들의 해산물 채취 욕심이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물속에서 숨을 참는 능력으로 조절된다. 공동체 수준에서 보면 마을 어촌계가 채취기와 금채기, 작업시간, 채취물의 크기 등을 정하고, 잠수장비를 규제함으로써 물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유철인, 2012). 최근 들어 국가의 많은 지원들로 인해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해녀는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해녀들의 물질 과정 전반을 보면 구석구석 공동체 정신을 찾아 볼 수 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불턱’에 모여 서로 협력하여 고무옷을 입고, 때론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옛날에는 고무옷 대신에 물소중이라는 전통 옷을 입고 했지. 몸에 딱 달라붙는 것이 아니기에 물질할 때 불편한 점도 많았지. 가끔은 돌이나 뾰족한 곳에 걸리기도 해서 찢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고무옷을 입게 된 거야. 지금에야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좋은데 초창기에는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 그리고 지금처럼 계절에 맞게 두께를 달리한다거나 개인의 체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보편화 되어 나오던 시기였기에 물이 들어가는 것도 일상이었지.

그리고 아침에 허겁지겁 밭일하고 집안일 하다오면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일쑤였지. 그럴 땐 쌀이랑 간단한 찬을 가지고 밥도 해 먹고...(중략)

일을 하다 보면 다같이 모여서 마을의 일이나 가정의 일을 상의할 시간이 없는데 물에 들어가기 전이나 물질이 끝난 후에 불턱에 모여 얘기를 하기도 했어.

불턱은 해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자 쉼터이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공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존재했다. 바로 불턱에서 나눈 이야기는 절대 불턱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서명숙, 2015). 불턱에서는 온갖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자식 자랑, 남편과 싸운 이야기, 어제 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집을 가보지 않아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오간다. 그 중에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참아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불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야기는 불턱 벽을 넘지 않는다는 오래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해녀들의 삶의 지혜

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불턱이 해녀에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남자들에게는 기다림의 공간이다(서명숙, 2015). 아침 일찍 물질을 나섰던 해녀들이 물 위로 올라올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남편이나 아들이 모여든다. 모여서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공동관심사나 농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물질이 끝나고 올라올 때쯤이면 다함께 마중을 하여 해녀들이 수확한 해산물을 끌어올려주고 옮기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불턱은 누구에게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랜 전부터 내려온 공간이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해녀의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사건과 경험을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성장과정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면담을 통해 각 단계별 경험과 사건에 대해 집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들여다보기 위한 도구로는 생애사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두 해녀의 생애를 재조명해 보았다.

수차례의 면담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건과 경험들을 시간 구성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참여자 간의 공통적인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녀의 성장과정을 보고 그것이 해녀가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어떻게 해녀가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연구 참여자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장과정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 해녀를 접하게 된 계기가 일이 아니라 놀이의 개념에서 바다를 놀이터 삼아 놀면서 자연스럽게 해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봐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로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해녀를 직접 선택했다기보다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갔던 바다를 통한 간접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두 해녀의 성장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보고자 하였다. 짧게는 10년, 많게는 60년 이상을 해녀로 활동을 한 해녀로서

가장 큰 어려움은 매일 매일 다르게 다가오는 바다라고 한 목소리로 답을 했다. 같은 시간에 나가 일정한 시간동안 작업을 하지만 바다 속 생태계는 물론이고 파고, 바람 등이 시시때때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해녀로서 성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해녀가 입문해서 상군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연구자 역시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연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야 말로 해녀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선배 해녀와 어머니로부터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 바다에 나가 몸으로 부딪혀 경험했을 때, 더욱 빠르게 익힐 수 있었다고도 말하였다.

또한 공동의 작업을 통해 쌓인 경험이 축적된 것이 해녀가 상군이 되는 과정에서 밑거름이 되었다고 얘기했다. 이는 교육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단위 어촌계에서 가끔 실시하는 공동 작업에서 누가할 것 없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 또한 해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의 가치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에 어찌면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해녀를 보전하고 전승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았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역사, 문화, 여성학적 접근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녀를 보고자 하였다.

해녀들은 수년 간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매번 다른 물살과 자연 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 또한 해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해녀를 통해 그들의 성장과정을 생애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입문해서 하군, 중군, 상군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달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험 못지않게 자연에 대한 적응력 역시 해녀로서 성장과정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해녀의 일터인 바다는 매뉴얼화 되어 있는 작업 환경이 아니라 실제 물질을 통해 몸으로 체감함으로써 배울 수 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빠르게 습득하느냐에 따라 성장의 속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해녀로서 상군이 되는 과정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변화무쌍한 자연과 싸워 이기는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경험이나 선배 해녀들의 조언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해녀의 생애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생애에 걸쳐 전문성이 발달되는 해녀를 더욱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애관점에서 해녀의 전문성을 발달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녀와 관련된 조직과 단체를 일원화하고 민·관·산·학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반영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공유한 결과를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시각에서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해녀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그 관심만큼의 연구나 문헌자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쩌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직업 또는 문화로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역사, 문화, 여성학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학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교육프로그램과 축제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녀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비록 두 해녀의 생애를 통한 연구이지만 해녀라는 직업 속에서 나타난 사건과 경험 등이 적은 표본으로 인해 부족할 수는 있으나 몇몇 공통적인 부분은 다른 대다수의 해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자가 보고자 했던 경험학습, 무형식학습, 일터학습 등 다양한 관점을 대입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해녀의 교육 및 체계를 갖추는 물론이거니와 유사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금씩 접근해 나가다보면 후속 연구들의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고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해녀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해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교육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장기은(2014). 제주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주.
- 강대중(2009). 평생학습 연구 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1), 201-223.
- 강권용, 권미선(2012). **제주해녀옷 이야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고성순(2009). 대학도서관 디지털 참고봉사의 사서 인식에 대한 중요사건 기법(CIT) 적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국립국어원(2018). 표준국어대사전. 2018년 4월 16일 검색.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권귀숙(1996). 제주해녀의 신화와 실체. **한국사회학**, 30(SPR), 227-258.
- 권귀숙(2011).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제주 4·3 의 여성사. **4·3 과역사**, 11, 65-88.
- 권재경, 김남규(2016). 두 평생교육학 교수의 생애전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12(3), 31-56.
- 김가현(2017). 여공에서 작가로 변신한 중년여성의 전환학습 경험 내러티브.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호(2016). 토착적 지식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탐색: 제주해녀 문화를 중심으로. **2016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다문화교육의 새 지평을 향하여**. 687-696.
- 김민호, 문현식, 홍효정(2015). **제주해녀문화 대중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주: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김민호(2017). 제주해녀의 토착지식 기반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방안. 교육

- 문화연구, 제23-4호, 433-458.
- 김영천, 이현철(2017).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서울:아카데미프레스.
- 김선기(2010). 제주해녀의 일본 진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일어문논집**, 14, 189-208.
- 김신영(2016). ‘생활의 달인’의 생애에 나타난 직업성공 내러티브 탐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신일(2000). 성인의 전환기 학습활동: 재미한인 사례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6(2), 187-211.
- 김신일, 한송희(2001). **평생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돈(1999). **한국의 해녀**. 서울: 민속원.
- 김지인(2016). 제주해녀의 삶에서의 건강관리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한별(2016).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남유진(2016), 평생학습 맥락에서의 직업경험 인정과 고등교육 접근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 프랑스 경험학습 인정제(VAE)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노희숙(2012).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경험을 통한 의미관점 전환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경수(2018). **문경수의 제주 과학 탐험**. 동아시아
- 박민정(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7(4), 27-47.
- 박성희(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원미사.
- 박정영(2000). 외식 서비스 인카운터에 관한 연구: Critical incident

- technique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박찬식(2004).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135-164.
- 박현옥(2016). 중년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한 전환학습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정선(2016). 이혼여성들의 연극단 활동을 통한 학습경험 내러티브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명숙(2015). **숨, 나와 마주서는 순간**. 서울:북하우스.
- 손세정(2008).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미정(2007). 제주 잠수의 어로와 의례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미정(2017).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 제주해녀(잠녀) 문화의 보편적 가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기념 국립무형유산원 특별전] 제주 해녀문화**.(120-133).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 염지숙(2001). 내러티브 탐구 : 그 방법과 적용. **질적연구학회**, 37-45.
- 오현석, 성은모(2010). 전문직종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 사회의 특성 및 동향분석. **직업교육연구**, 29(2), 205-223.
- 유철인(2013). 유네스코 무형문화 등재와 해녀의 지속가능성, **제5회 해녀 국제학술심포지움자료집**. 제주:제주문화예술재단.
- 이경희, 박성희 (2006).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애사연구: 사례재구성을 통한 중년여성의 학습개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 연구**, 12(3), 73-95.
- 이병준, 박응희(2015). 수공업 장인의 문화적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통영 장인의 학습생애사 연구-.**문화예술교육연구**, 10(3), 27-43.
- 이선화(2016). 제주해녀 생애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엽(2008). 기업에서의 무형식 학습에 대한 사례연구: A은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성훈(2005). **해녀의 삶과 노래**. 서울:민속원.
- 이은경(2017). 엄마되기 과정에서의 전환학습 경험에 대한 자전적 내러티브 탐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실(2011). 일터경험학습을 통한 명장의 성장과정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중한(2016). ‘깨달음의 장’ 참여자들의 성찰학습경험 내러티브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원섭, 김지영(2013). 명장의 길 : 우연에서 필연으로. **진로교육연구**, 26(3), 23-41.
- 장원섭(2015). **장인의 탄생**. 서울 : 학지사.
- 전현정(2017). 기업교육 명강사의 탄생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좌혜경(2002). 일본 쓰가지마의 ‘아마’와 제주해녀의 비교 민속학적 고찰. **한국민속학**, 36, 229-270.
- 좌혜경, 권미선(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집, 229-259.
- 좌혜경(2015). **제주 해녀**. 대원사
- 제주도 문화예술과 제주도지편찬위원회(2004). **제주여성 전승문화**. 제주: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특별자치도내 읍면별 해녀현황**.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2007).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최라영(2012). 평생교육계 원로들의 생애사를 통해 본 ‘지혜로운 나이 들’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영신(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 연구**, 2(2), 1-22.

한상만(2013) 경험학습을 통한 名醫의 전문성 발달과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해녀박물관(2015). **제주해녀**. 제주: 해녀박물관.

해녀박물관(2016).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자료집**. 제주:해녀박물관

Ackerman, A., Graham, M., Schmidt, H., Stern, D. T., & Miller, S. Z. (2009). Critical events in the lives of intern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4(1), 27-32.

Boud, D., & Walker, D. (1993). Barriers to reflection on experience. In D. Boud., R. Cohen & D. Walker (Eds.), *Using experience for learning* (p.73-86). Bristol, PA: The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 Open University Press.

Boud, D., Keogh, R., & Walker, D. (1996). Promoting reflection in learning: A model. In *Reflection: Turning Experience into Learning*. London and Newyork : RoutledgeFarmer.

Cameron, J., & Pierce, W.D.(1994). Reinforcement, reward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ta-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4, 363-423.

Cameron,J.,& Pierce,W.D.(1996). The debate about rewards and intrinsic motivation : Protests and accusations do not alter the

- result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 39-51.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내러티브 탐구**(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파주 : 교육과학사(2000).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CA: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외 역). 서울: 학지사(2010)..
- Deci, E.L., & Ryan, R.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ur. *Psychological Inquiry*, 11, 319-338.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 Dewey, J. (1979). **생각하는 방법**(임한영 역). 서울 : 법문사(1938).
- Dewey, J. (1958). *Experience and natur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Drucker, P. (1997). The future that has already happened. *Harvard Business Review*, 75(5), 20-24.
- Ericsson, K. A., Krampe, R. T., & Tesch-Römmner, C. (1993). The role of deliberate practice in the acquisition of expert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100(3), 363-406.
- Flanagan, J. C. (1954). The critical incident technique. *Psychological Bulletin*, 51(4), 327-358.
- Houles, C.O. (1984). *Pattern so flearning*. San Fransisco: Jossey-Bass Publishers.
- Ingham, R. & Nelson, R. M. (1984). "How does a person learn? Using life history method to answer the question." Paper presented at

- American Association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 Howatson-Jones, I. L. (2011). Using an auto/biographical approach to investigate nurses' learning. *Nurse Researcher*, 19(1), 38-42.
- Kolb, A. Y., & Kolb, D. A. (2005). Learning styles and learning spaces: Enhancing experiential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4(2), 193-212.
- Levinson, D. J. (2003).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애순 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78).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 Lichtman, M. (2006).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A user's guide*. CA: Sage Publications.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 Mezirow, J. (1978). *Education for perspective transformation: Woman's reentry programs in community colleges*. NY: Center for Adult Edu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Mezirow, J., & Associates. (1990). *Fostering critical reflection in adulthood: A guide to transformative and emancipatory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Michelson, E. (2011). Autobiography and selfhood in the practice of adult learning. *Adult Education Quarterly*, 61(1), 3-21.
- Polkinghorne (1988). Narrative and Self-concept. *Journal of Narrative and Life History*, 1(2&3). 135-153.

- Rossiter, M.(1999). A narrative approach to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50(1), 56-71.
- Russ-Eft, D. (1999). Research methods for advancing performance improvement.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1(1), 68-82.
- Smith, T. F. (2008). Methods in identifying exemplary performa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7(4), 443-468.
- Sosniak, L. A. (2006). Retrospective interviews in the study of expertise and expert performance. In K. A Ericsson., N. Charness., P. J. Feltovich & R. R. Hoffma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expertise and expert performance* (pp. 339-353). New York: Cambridge.
- UNESCO. (2016).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 Retrieved December 4, 2016, from <http://www.unesco.org/culture/ich/en/RL/culture-of-jeju-haenyeo-women-divers-01068>

<부록 1>

연구참여자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 및 HRD 재학 중인 홍정관입니다.

저는 해녀의 생애사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대학원 학위 논문에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연구 참여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이 될 예정입니다. 녹음된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 종료 후, 폐기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를 통해서 수집된 내용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연구자와 면담을 하는 동안 대답을 거부하고 싶은 특정 질문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면담 시 궁금한 것이나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질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참여자 : (서명)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 및 HRD전공

지도교수 : 이 성 엽

연구자 : 홍 정 관

(H.P:)

<부록 2> 반구조화 된 질문지

질문 내용
1.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2. 가족 관계는 어떠했나요?
3. 해녀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어떠했나요? 가족 중에 해녀가 있었나요?
4. 해녀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나요?
5. 물질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기분이었나요?
6. 물질을 처음 시작할 때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7. 물질을 처음 배우기 전에 먼저 된 해녀로부터 받은 물건이 있나요? 물건이 없다면 들은 조언이 있나요?
8. 바다 속에 들어갔을 때와 육지에 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기분이 드나요?
9. 해녀는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다를 이해하게 되었나요?
10. 바다 속에서 해녀의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1. 해녀를 처음 시작할 때와 현재의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물론 세월이 지났기에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이외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12. 해녀를 하군, 중군, 상군으로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13. 해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사건이 있었나요?
14. 물질을 하다보면 여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떠한 상황들이 있으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15. 물질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하고 계시나요?
16. 가족들은 본인이 해녀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17. 현재 건강상태와 앞으로 얼마나 더 물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